

<A Silent Message>

더하지 말고, 과시하지도 말고



1

서울 평창동의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A Silent Message>.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하고, 돌과 나무 등 성질이 다른 여러 자연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작가 최병훈의 세계가 펼쳐졌다.



2

1 현무암, 자연석, 수석 등을 수납공간 사이에 끼워 넣거나 지지대로 사용한 나무 책장 시리즈. 따뜻함과 차가움, 가변성과 영원성 등 나무와 돌의 상반되는 성질을 조화롭게 풀어냈다.
'afterimage of beginning 021-582', 193×51×80cm, 2021 © 최병훈
2 사이드 테이블 시리즈에서도 수석과 나무, 옷칠 등 여러 자연 재료를 동시에 사용한다.
'afterimage of beginning 020-542', 51×30×59cm, 2020 © 최병훈
3 최병훈 작가는 가구뿐 아니라 조각과 회화까지 폭넓은 창작 활동을 펼쳐왔고, 특정 수식어로 그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왼쪽) 'afterimage of beginning 021-543', 229×80×55cm, 2021
(오른쪽) 'afterimage of beginning 015-439', 80×40×51cm, 2015



© 임연균

자연과 인간, 단단함과 유연함, 거칠과 부드러움. 최병훈 작가의 작품 속에는 상반된 개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목공예가, 조각가 혹은 아트 퍼니처 작가... 최병훈 작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그의 작업 속에서는 수많은 개념이 생생히 살아 있고, 하나로 연결되며 무궁무진한 세계를 완성하기 때문.

지난 12월 12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최병훈 작가의 개인전 <A Silent Message>에서 그 무한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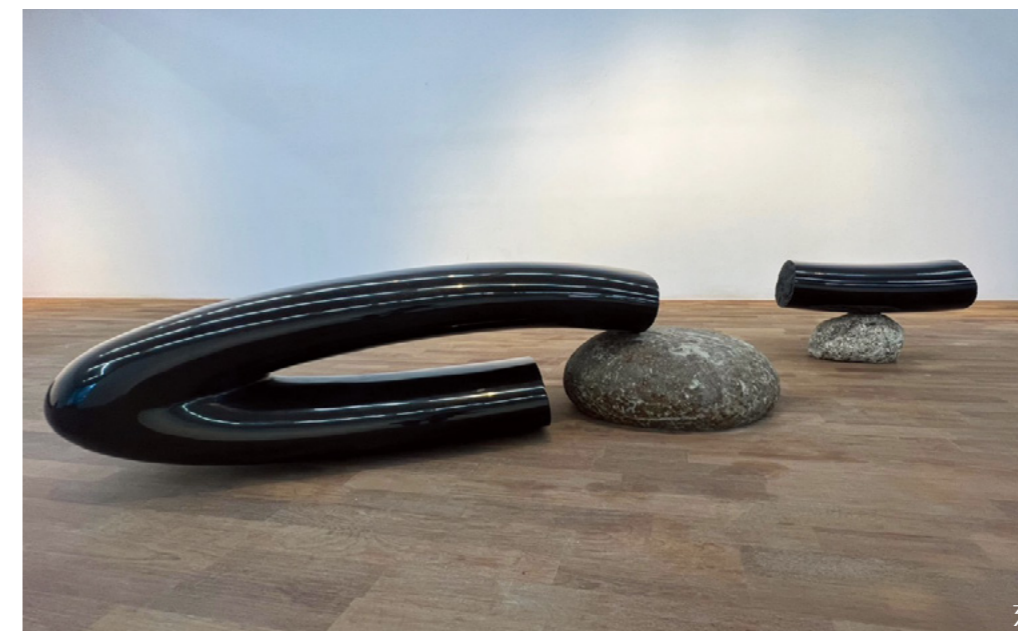
전시는 '빈장櫥의 공간' '빈상床의 공간' '빈좌坐의 공간'으로 나뉘어 각각 장 시리즈와 콘솔 시리즈, 아트 벤치를 선보였다. "세 공간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빈은 '비어 있다'라는 뜻 외에도 '빛난다'는 뜻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건 고요와 적막을 의미하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침묵은 오히려 빛이 납니다.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역설적 시도이죠."

작가는 돌과 나무를 기본 재료로 사용한다. 나무 책장의 중간중간에 돌을 끼워 넣거나, 옷칠한 둥근 나무를 돌로 지지해 사이드 테이블을 만드는 등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특징. 역겹의 시간을 내포한 자연 재료를 깎고 다듬어 그의 현재 날갯짓을 새기자, 상반되는 성질과 이질적 시공간이 겹쳐 새로운 가치가 탄생했다. 주로 사용하는 자연의 물감인 옷은 재료에 광이 도는 검정을 덧입힌다. 작품

의 표면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아주 깊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태초의 순수함이 전해진다.

최병훈 작가는 오래전 '내 세계가 있어야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화려한 서양 스타일을 좇기보다 단순한 조선 가구의 정제된 형태와 동양철학의 겸양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찾았다. 최병훈 작가가 털어내고 최소화하며 만들어낸 여백에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침묵의 진리가 담겨 있다. ♣

글 박근영 기자 | 자료 제공 가나아트센터



3